



브라질 경제위기와 석유산업의 방향

- 국영 석유공사(Petrobras) 민영화 가속 -

본 란은 순간석유정책 4월 15일자의 내용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머리말

아시아, 러시아 등 세계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1999년 또다시 남미의 브라질을 덮쳤다. 1997년의 위기를 견디어냈던 브라질은 이번 *Real*貨 절하가 멈추지 않아 변동환율제로 바뀌어야만 했다. IMF의 지원을 받았지만 시장 신뢰도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브라질중앙은행은 지난 1월 13일 *Real*貨를 실질적으로 절하하고, 18일에는 변동환율제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당초 브라질정부는 고평가된 *Real*貨를 서서히 절하할 방침이었으나 1998년 8월 러시아위기 여파에 따라 달러가 국외로 대량 유출되어 11월에 IMF로부터 415억달러의 긴급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으나 IMF에 약속한 세금인상 및 세출삭감등이 의회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시에 위기가 표면화되었다.

IMF는 지난 가을 400억달러를 지원해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수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럴해저드를 유발했다. 브라질정부는 외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위기극복에 필요한 정책추진에는 게을리했다.

통화하락의 폭은 아시아위기와 비교하면 브라질쪽이 크다. 이는 아시아국가보다 브라질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융시스템은 아시아쪽이 훨씬 취약하다. 한편 브라질의 통화위기는 러시아위기의 그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러시아정부의 국채 25%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한꺼번에 매도에 나선다면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브라질의 경우 외국인의 국채보유율은 2~3%에 지나지 않아 급격한 외자이탈의 영향은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적다.

미은행은 브라질에 약 170억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브라질 경기후퇴로 이 채권들이 불량채권화된다면 우선 미은행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Real*貨 하락으로 브라질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경우, 대미무역 균형이 깨질 우려도 있다.

1. 경제동향

브라질경제는 1997년 3/4분기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4/4분기부터는 경기조정국면을 맞이했다. 1997년 9월의 홍콩주식폭락을 계기로 주가가 하락한 브라질은 아시아통화, 경제위기의 파급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의 긴급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Real*貨의 폭락으로 인플레이 발생가능성도 예상되고 있

다. 브라질은 1993년에 '연간 2,489%' 라는 천문학적 인 초인플레이를 경험했다. 1998년은 2.6%를 기록했지만 1999년 들어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12~15% 정도로 보고 있지만 민간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20% 전후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

브라질을 어렵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국내총생산 대비 8%를 웃도는 재정적자이다. 브라질정부는 IMF지원조건으로 재정흑자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세출삭감과 국영석유회사, 전력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재정은 인플레이와 소비저하를 한층 더 가속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대외채무규모는 현재 약 2,250억달러에 이르며 브라질 채무의 1/3은 州정부가 지고 있다. 급여와 연금지출을 법정한도(세입의 60%)로 줄인 주는 거의 없다고 한다.

IMF가 브라질정부와 추진해 온 제2차금융지원에 관한 협의가 최근 종료되었다. 이는 1998년 12월에 실시된 제1차지원(90억달러)에 이은 것으로 규모는 약 90억달러로 보고 있다. 다만 지원조건인 고금리와 재정긴축이 경기후퇴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의 90억달러 지원을 받은 결과, 브라질의 외환보유고는 약 349억달러에서 440억달러까지 회복하여 외화부족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이자 지불부담 등을 제외한 재정흑자를 GDP대비 3~3.5%로 하는 등 1998년 11월 합의시보다도 엄격한 재정개선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의 재정흑자는 현재 GDP대비 약 8%, 브라질 정부는 IMF지원을 받기 위해 1999년 재정흑자를 2.6%, 2001년을 3%로 하는 재건계획을 1998년 10월에 발표했다.

페트로 말란 재무장관은 1999년의 재정흑자를 GDP 대비 3~3.5%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흑자에 관해서는 과거 방만한 재정운영이 지적을 받았다.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상당히 높는데 세수의 92%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州도 있다.

브라질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부문 전체 재정

수지개선에 착수해 1999년에 증세와 세출삭감으로 IMF와 합의한 총액 283억Real貨의 개선계획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동정부는 IMF에서 9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최근 세출삭감의 추가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 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세출을 삭감, 재정개선효과는 총액 약 40억달러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2. 에너지 수요

브라질의 석유, 천연가스, 전력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수력발전량은 많으며 원유생산량을 높여 자급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철강산업에 필요한 석탄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에너지 자급화와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브라질정권의 건축재정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여 국가재정 흑자액을 1999년 2.6%, 2000년 2.8%, 2001년에 3%로 높이는 한편 예산을 20%~30%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질은 1차에너지수요중 석유수요는 약 67%를 차지해 압도적인 석유의존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는 에너지총수요 중 약 4%를 차지하지만 앞으로 인접국가에서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 소비량을 늘려 2년후에는 수요가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1차에너지수요중 천연가스는 2010년까지 10~12%를 차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브라질남부와 볼리비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고 있고 1999년 제 1/4분기에는 전체길이 2,300km 중 브라질은 1,890km, 볼리비아는 410km, 수송량은 10억ft³/일이며 향후 5년 이내에 20억ft³/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주로 발전용으로 소비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계획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브라질의 석탄소비량은 1차에너지수요중 9%를 차지하고 있으나 브라질석탄은 열량이 낮고 회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호주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수가 가능한 국내석탄매장량은 약 31억톤, 1996년 생산량은 470만톤이었다. 대부분의 석탄수요는 제철산업용이고 나머지가 발전용이다. IEA의 예측에 따르면 브라질은 향후 10~15년간 세계최대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해 2010년경 석탄수입은 현재의 2배에 달하며 대부분의 수요는 제철산업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로서는 발전용 수입탄, 국산탄의 사용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표1〉 브라질의 1차에너지수요

(단위:석유환산, 만t)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합계
1996년(%)	7,680(66)	490(4)	1,090(9)	60(1)	2,290(20)	1억1,610
1997년(%)	8,280(67)	530(4)	1,130(9)	90(1)	2,390(19)	1억2,410
전년대비(%)	+78	+0.2	+3.7	+50.0	+4.4	+6.9

브라질은 1차에너지수요중 수력이 약 20%, 원자력발전이 약 1%를 차지하고 발전능력은 현재 약 59,100MW로 발전량의 약 95%가 수력이다. 브라질은 파라과이와 함께 세계최대의 수력발전소(12,000MW)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능력은 현재 59,100MW에서 2007년까지 96,200MW로 높일 계획이다.

전력수요는 연 7%의 비율로 증가하며 대부분의 증가는 비개발지역인 북동부(연 10%)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이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매년 3,650MW의 발전능력증설이 필요하다. 향후 5년간 연 80억달러, 10년간 5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발전능력의 증가와 자금조달을 위해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현 브라질정권은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 및 공채상환과 재정건전화, 경영효율화를 위한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는 1995년 8월

에 전화, 통신사업, 11월에는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독점을 폐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사업의 민간, 외자도입의 구체적인 실시를 가능케 하는 법률은 1997년 7월에 입법되었다. 에너지부문은 Petrobras(석유), Electrobras(전력), INB(원자력)인 각 국영회사의 독점총괄체이었으나 단계적으로 민간참가를 도모하고 있다.

1997년 7월 입법된 석유산업법은 감독기관으로서 국가석유청(ANP)을 설치하고 석유탐사, 생산분배등에 민간 외자의 참가가 가능하게 하였으나 Petrobras의 완전 민영화는 아직 예정에 없다.

3. 석유사업 현황

(1)국영석유공사(Petrobras)의 존재

브라질정부는 석유자급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내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근해 Campos Basin에서 주로 130만b/d규모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2001년까지 160만b/d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석유수요는 약 180만b/d로 증가추세에 있다.

브라질정부는 1997년 국가석유청(ANP)을 설치하고 Cardoso대통령이 석유투자법에 서명하였다. 동법에 의해 ANP는 브라질 석유업의 국내 및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광구와 석유사업분야 일부를 매각하여 필요자본을 조달해 국내원유생산을 석유수요에 충당하는 소위 자급화를 위해서이다. 브라질은 현재, 석유수요중 약 38%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외화는 50억달러에 달한다.

국영 Petrobras는 과거 43년간 탐광, 생산, 정제, 수송, 국내판매, 국제거래의 독점사업체였으나 1998년 7월에 ANP가 「브라질석유 퇴적층분지의 92% 이상은 다른 석유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독점 체제에 종말을 기했다.

ANP에 따르면 Petrobras는 브라질 주요유전(리우데

자네이루해안근해)의 Campos 광구(브라질원유생산량의 약 70%)의 52%는 앞으로도 지배권 유지가 가능하고 그중 2개의 유전(Albacora 및 Barracuda)이 있으나 향후 3년간 상업생산이 가능하지 않으면 ANP에 환원되어 타석유기업에게 개방할 것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헌법에 의해 동공사는 완전민영화 되지는 않지만 최근 정부가 재정곤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완전민영화의 문제가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정부는 동공사 권익의 31.7%(추정 50억달러)를 급히 매각하고 사업운영상 필요한 최저의결권만 남기려 하고 있다.

브라질은 1999~2002년까지 석유사업에 필요한 380억달러의 자금확보를 위해 외자 유치중에 있는데 1998년 9월 텍사코가 브라질에 5년간 20억달러, Petrobras와 공동으로 탐광, 생산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1998년 10월에는 아르헨티나 국영 YPF를 주요 파트너로 하는 콘소시엄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현재 액슨, 모빌 등을 포함한 몇개 회사의 콘소시엄과 72억달러 규모의 사업계획을 협상중이다. 하지만 세금이 신규유전에 관한 지방세 등을 포함해 총 47%에 달하는 등 외국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많아 타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자체조달이 불가능한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①국내석유제품시장의 신규참가 ②석유정제사업 신규참가를 위한 소위 하류부문사업의 규제완화에 관해 논의될 듯 하다.

ANP는 이미 올해 1월, 향후 수년내에 브라질내 11개 정유공장의 권익을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각기로 하였으나 이는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개의 외국기업이 정유공장 신설에 대한 관심을 보여 Ceara주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데 가동은 5년후나 될 것으로 보여 브라질 내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IMF는 브라질정부에 빌려준 90억달러에 대한 담보로 Petrobras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 현재 브라질 통화폭락 및 대량석유수입의 상황으로 인해 IMF 및 국제금융기관, 은행단도 용자에는 신중한 자세

를 취하고 있다.

브라질정부는 원유생산량을 현재의 130만b/d에서 2001년까지는 160만b/d로 늘릴 계획이나 자금의 뒷받침이 없으면 상당한 무리이다.

IMF는 브라질 석유제품가격을 국제수준에 연동하기 위해 1999년 7월이후 매월, 자동조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Real(貨)가치하락과 또 휘발유와 경유 등이 생활필수품이라는 이유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통제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Petrobras의 매출액은 1997년 261억Real에서 1998년에는 259억Real, 순이익은 1997년 15.3억Real에서 1998년에는 14.3억Real이었다. 1998년 제4/4분기의 순이익은 8.7억Real로 전년동기대비 2배나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가자산의 매각이익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수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변동이 없다.

원유, 천연가스의 매장량(석유환산)은 1997년에 85억배럴이 1998년에는 86억배럴로 늘었고 순자산은 1998년말 기준 218억Real이다. 민영화를 가속시키려 하여도 원유가격 및 주가의 하락때문에 자산가치는 떨어졌다.

메릴린치의 조사에서는 Petrobras 주식을 31.7%매각한 경우 그 가치가 1998년 6월시점에는 약 60억달러였으나 현재는 24억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49%를 매각하고 51%를 정부가 보유해도 자금조달액은 작년 시점보다 상당량 부족해 매각할 수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각가능 시기는 1999년말 내지는 200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 및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규제완화, Petrobras 민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대해 브라질정부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2) 원유생산

지금까지 브라질정부는 원유생산을 1998년 100만b/d, 1999년 120만b/d, 2000년에는 150만b/d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130만b/d, 2001년은 160만b/d로

계획하고 있다.

〈표2〉 브라질의 원유생산량 추이

(단위: 만b/d)

1990년	1995년	1997년	1998년	1999년 1월	1999년(추정)
65	71	113	127	136	142

(BP통계: IEA 1999년 2월 발표예측)

(3) 석유수요

〈표3〉 브라질 석유수요 추이

(단위: 만b/d)

1990년	1995년	1997년	1998년
128	150	179	180

(BP통계: 1998년판)

향후 3년간, 연 +5% 증가

(4) 석유정제

〈표4〉 주요제품의 석유수요

(단위: 만b/d)

유종	1월	
	1998년	1999년
자동차용 휘발유	31	32
L P G	19	20
나프타·석유화학용 경유	21	21
디젤 연료유	50	53
항공용 등유	8	8
중유	22	19
합계	151	153

브라질의 원유처리능력은 약 180만b/d로 Petrobras의 독점체제이나 석유수요는 180만b/d(알콜연료제외)로 거의 균형이 맞다. 동공사는 2000년까지 189만b/d로 능력확장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의 셰브론과 텍사코와 같은

메이저의 정제능력보다 높으려 하고 있어 신규참가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원유처리능력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도 수요구성과 제품수출문제로 인해 디젤연료유를 포함해 20만b/d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향후 석유수요는 연 5%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Grupo Pebotto de Castro/YPF의 소규모정유공장(1.4만b/d)을 2.5만b/d로 확장하기 위해 이미 ANP의 허가를 받았다. 독일 Thyasen International사는 북동부 Ceara주에 17.5억달러를 투자하여 2001년말에 10만b/d, 2004년까지 20만b/d규모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원유는 나이지리아, 앙골라산의 경질원유를 수입, 중질원유는 Petrobras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그외에는 독자적으로 참가할 계획은 없고 오직 Petrobras가 정유공장의 능력확장을 기해 주식을 방출할 경우 매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5〉 브라질 정유공장 일람표

(단위: 1,000b/d)

	위치	능력
Petrobras	Rio Grande do Sul	125
	Sao Pulo	45
	Rio de Janeiro	240
	Minas Gerais	145
	Sao Paulo	223
	Bahia	284
	Amazonas	15
	Sao Paulo	327
	Sao Paulo	170
	Parana	189
	소계	1,763
Grupo/YPF	Rio de Janeiro	1414
Gouzeia 家	Rio Grande do Sul	12
합계		1,789

텍사코, 셸, 엑슨 등은 과거 80년에도 브라질에 석유를 판매해 여러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다. 엑슨은 2,721(셰어 9%)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고 셸은 20%의 셰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연료유

수입자유화에 대비해 민간부문에 의한 제품수입사업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Petrobras는 제품수입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1998년 9월 브라질 LPG판매업자 Copagaz사가 볼리비아産 LPG수입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이로 Petrobras수입독점권이 이미 무너지게 되었다. 1999년 중으로 LPG가격통제가 철폐되고 2000년 8월까지 다른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통제도 철폐될 예정이다.

맺는말

브라질정부는 IMF로부터 거액의 금융지원을 지원받는 한편, 통화절하의 결과, 브라질의 1999년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해져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Financial Times誌는 최근호에서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1999년중에 마이너스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FRB(연방준비이사회)는「신흥시장(Emerging Market)은 1997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즉 1998년 8월~9월에 비하면 크게 회복하고 있고 한국, 대만을 비롯한 국가들의 경제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브라질경제는 많은 우려요소가 있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브라질경제의 행방은 전세계의 관심이지만 견해는 다양하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현재 9%이나 오는 7월에는 11%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은 정부대책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3~5월에는 8%까지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상에서도 부유층은 투자와 고금리의 운용으로 생활수준을 통화위기 전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으나 저임금 노동자는 인플레이션만큼의 실질수입이 줄어든다. 또한 기업은 수요가 줄어들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해 소득이 부유층으로 집중되게 된다.

브라질 Real貨의 가치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금리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지만 경기는 후퇴하고 인플레이션은 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이렇게 된다면 IMF계획방향과 브라질정부의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진다.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브라질경제위기의 중남미로의 파급은 없을 듯 하다. IMF의 증자결정으로 국제적인 지원자금에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성급한 긴축정책을 취한다면 ①경기후퇴 ②실업증가 ③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석유산업 입장에서 본다면 아시아 경기침체가 석유수요감소 내지 증기둔화라는 사태로 발전해 「공급대비 수요부족」이 결국 원유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브라질경제가 국제석유업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번역·대한석유협회 기획조사팀)

경제상식

코스닥(KOSDAQ)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미국의 주식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합성한 명칭. 96년 7월 개장됐다. 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해 기업이 쉽게 등록(상장)할 수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 많이 등록되고 있다.

적대적 M&A

적대적 M&A(Merger and Acquisition)란 소유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업을 사려는 사람이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외자유치 붐을 타고 최근 대기업들의 자금상황이 호전되자 외국기업에 대해 '우호적' 지분매각을 꺼리게 된 것이 원인. 적대적 M&A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주가를 높게 유지하거나 정관개정 등을 통해 경영권이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다른 기업에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